

危險調查 業務를 制度圈으로

韓國産業安全公團이 發足되었다.

業務 內容으로는 産業安全 診斷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診斷 費用은 實費만 徵收하고 不足分은 産業災害 保險料의 一部로 充當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公團에는 協會에서 오래 몸담아 오던 사람이 scout되어 갔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主要 産業體에 대한 産業安全 診斷時 學界의 權威者 및 協會의 職員으로 構成된 診斷班이 産業災害의 豫防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診斷을 實施하면서 産業災害의 重要性을 繼續 強調하여 왔고, 年間 9,000億원을 上廻하는 產災被害額은 200億원에 不過한 火災被害에 비하여 몇 십배나 되는 많은 被害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그동안 各種 産業災害의 頻繁한 發生이나 産業安全 業界의 많은 관심과 不斷한 努力이 “産業安全公團” 發足を 뒷받침하는 楚石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한번 짚고 넘어갈 必要가 있다 하겠다.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勤災保險이 產災와 直結되는 危險을 擔保하고 있으나, 이 分野를 크게 꽃피우지도 못하고 새로운 機關에서 專坦케 되었다. 하기가야 各 機關마다 그 特性을 專門으로 開發하여 水準높은 技術 普及과 經濟的 管理가 實行된다면 탁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協會의 成長과 發展만을 日九月深 念願해온 탓인지 뒷맛이 개운치를 못하다.

한편, 付保物件에 대한 危險管理를 위하여 各 原受社에서는 專坦 單位部署 내지 危險管理課를 모두 設置하였으며 協會에서도 많은 職員이 원수사에 scout되어 坦當 人員만도 60여명을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 增員할 計劃이라고 한다.

協會에서 遂行하는 危險調查 業務가 원수사에 대한 技術풀(pool)의 窓口가 되도록 하는 研究, 開發에 加一層 奮發이 必要하며, 아울러 協會 固有業務로 定着시키는 制度的 措置도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安全公團의 發足과 危險管理 分野의 底邊 擴大를 살펴 보건데 우리 周邊의 與件 變化가 일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協會는 善意의 競爭機關이 생겼다는 데 대하여 안으로 內實을 더욱 다져야 하겠으며 生存(survival)을 위한 自求策이 摸索되어야 하겠다.